

# 송유억불에 문힌 266칸 대찰

## 양주 회암사지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 경

기도 양주군 회암면 회암리, 천보산 밑 넓은 평지에는 한때 조선 최대의 사찰이었던 회암사 터가 남아 있다. 거대한 당간지주, 부도, 그리고 수십동에 달하는 건물 기단과 초석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다. 거대한 절터의 한쪽 끝에 현재의 소박한 회암사가 건립되어 있지만, 원래의 영화와는 전혀 무관한 사찰이다.

지금은 비록 폐허인 채로 남아 있지만, 이 절을 세운 이는 그 유명한 인도승려 지공이었다고 하고, 그 제자인 나옹화상이 1376년경 크게 중창하게 된다.

1323년, 지공이 이곳에 절터를 정한 이유는 지형의 생김새가 서인도의 가람 사원의 환경과 꼭 닮았기 때문이었다고, 중국에서 고려로 귀환하는 나옹에게 회암사의 부흥을 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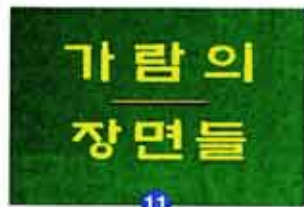
나옹은 중창공사 도중에 전국적 규모의 권수회를 개최했는데, 남부 권현을 막론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당국에서는 집회 금지조치를 취하게 된다. 그러나 일반 신도들의 불심과 나옹의 인기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양보냄으로써 원한 봉쇄를 의도했다. 노구의 나옹은 귀양 도중에 잠깐 들른 여주 신흥사에서 그만 입적하고 만다.

지공과 나옹에 이어 이 절과 깊은 관련을 맺은 이는 바로 조선 태조 이성계였고, 그의 종교적 대리자인 쿠학대사가 회암사를 후원함으로써 조선 초까지 그 찬란한 빛을 잃지 않았다. 고려말 조선초의 정국과 교단을 중시했던 지공·나옹·무학의 부도가 아직도 회암사지 뒤편, 천보산 자락에 나란히 남아 있어서 이 절의 유구한 정통성을 말해준다.

송유억불의 조선시대에도 회암사는 전국적인 지도력을 가진 본산으로서, 한때 승려수가 3000명에 이르렀고, 명종 때 삼정이었다던 문정 왕후와 보우선사에 의해 다시 한번 중흥기를 맞기도 했었다. 그러나 문정왕후의 섭정이 끝나고, 보우선사는 사대부들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았다. 회암사의 스님들도 다 추방당하여, 건물은 잃고 주인이 없는 폐찰이 되고 말았고, 어느 순간엔가 지상의 건물들은 모두 없어지고 말았다.



◇경기도 양주 회암사지. 거대한 당간지주가 대기림이었음을 말해준다. 묵은 아색은 〈천보산 회암사수조기〉를 통해 가람의 건물들과 배치구조를 상세히 묘사, 당시 모습을 복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주었다.



### 1328년 인도승 지공이 세워 당간지주·부도·초석만 남아

### 이색 저서에 건물배치 상세 옛건물 모습 되살릴수 있어

그러나 오늘 날, 다시 회암사터가 주목을 끄는 이유는 이 절의 찬란한 건물 때문은 아니다. 나옹스님이 중창한 지 600년이 지난지만, 당시의 모습을 언제든지 복원해 볼 수 있는 매우 정확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기록을 남긴 이는 바로 고려말 충신이었던 묵은 이색이다. 이색은 〈천보산회암사수조기〉라는 기록에서 이 절의 유래나 개인적 감상 뿐 아니라, 가람의 건물들과 배치구조를 상세하게 묘사했다. 예를 들어 5칸의 보광전은 남향을 하고 있고, 보광전 뒤쪽

에는 5칸 설법전이, 그 뒤로는 1칸 사리전이 배열되었다. 또 그 뒤로는 3칸의 정상이 있는데, 좌우로 각 23칸인 동서방장이 있다. 동방장 중쪽에는 3칸 나한전이, 서방장 서쪽에는 3칸 대장전이 있다...는 식으로 '대단히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다. 기록의 순서대로 따라가다 보면, 원래의 266칸 복원도를 그릴 수 있을 정도다.

이 정도의 기록을 '대단히 자세하게' 라고 수식하는 이유는, 조선조의 사대부들 기록에서는 이처럼 사실적인 묘사를 볼 수 없기 때문

이다. 특히 사대부들이 경멸했던 불교 사상은 더욱 묘사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 이색 역시 뛰어난 사대부였지만, 적어도 고려시대의 문인들은 불교 사상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고, 건강한 사실주의적 태도를 지니고 있었다.

반면, 조선조의 문인들은 눈에 보이는 현상세계 보다는 추상적인 관념의 세계를 더욱 중시 여겼다. 또한, 세상에 대한 객관적인 서술은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겨 구체적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 조선의 선비 가운데 가장 포용력이 컸던 퇴계 이황의 기록마저도 이 태도를 견지하고 있었다. 이황은 한 때 안동의 봉정사에 기거하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봉정사 가람에 대한 묘사는 물론이고, 봉정사라는 사찰 이름마저도 등장하지 않는다. 반면, 봉정사 바로 앞에 지은 정자와 공경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무수히 많은 시가를 통해 남기고 있다. 같은 성리학, 같은 문자를 가지고도 이처럼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다.

고려시대는 불교의 시대였다. 단지 종교적으로만 불교였던 것이 아니라, 생활의 모든 순간, 사람들의 감정 체계, 심지어 지식인들의 성향까지도 불교적이었다. 불교적인 기록은 구체적이며 사실적이다. 불교 회화도, 조각도 그러하다. 불교가 지향하고 있는 대중성과 평등성이 그러한 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다. 회암사의 건물은 비록 사라져 버렸지만, 이색의 기록에 의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는 것도 고려시대 문학의 사실적 태도 때문이다.

현대불교 99년 기획 **돌부처를 찾습니다**

## 보관·팔찌등 장식 화려

###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상

#### ■석불문화연구회 답사

서울 중계본동 학도암은 천보산 중턱에 자리잡고 있는 단아한 암자이다. 천각과 산신각 굴뚝담이 있는 작은 암자 학도암에는 그래서 높이 10cm에 이르는 거대한 암석위에 선각된 마애관음보살상이 유난히 눈에 띈다.

고종7년 명성황후 민비의 불심으로 조성됐다는 마애관음보살좌상은 머리에 아미타여래의 화불을 모신 보관을 쓰고 있는데, 각 부분의 높고 낮음과 크기 작기 그리고 굵기 가늘기의 비례가 적절하다. 또 보관 테두리 양편 갖힌 위에서부터 한줄씩의 구슬달린 마름모 모양의 사슬장식이 양어깨에 얹히도록 드리워진 특징은 매우

### 균형·세련미 뛰어난 목조전실 흔적 보여 구한말 민비 조성설

새련되었으며 화려함과 위엄도 충분히 갖췄다. 머리의 두광도 장조를 위함인지 신광은 약하게 처리돼 있다.

눈은 가늘고 길며, 코는 두뚝하며 입술은 아주 얇고 작다. 목에는 삼도가 그려져 있으며 가슴부분에 피며들을 한 내외위에 통견의 천의를 걸치고 있다. 연화대좌 위로 걸터치는 하늘하늘한 천의 자락은 흐르는 듯 유연함이 자연스럽다.

석불문화연구회 김시연회원은 "학도암 마애삼존불은 전체적인 조각기법이 뛰어난 보이지만 조선시대 송유억불 정맥속에서 퇴화된 조각기법속에 유독 균형미를 보여 불교신앙이 깊은 장인의 손길로 만든 듯하다"고 말했다. 정리=김원우 기자(wkim@buddhopia.com)



◇학도암 마애관음보살상

**불교조각원**  
부처님오신날 전통 민중 불교조각원

서울사무소: (02)738-8447-8  
대전사무소: (042)483-8466

### 송라사 약사불

고종: 정영호 박사



◇강릉 송라사 약사불

### 안정감 갖춘 신라 불상



강릉 송라사 약사불(본지 230호 11면 참조)은 몸체에 비해 하체가 커서 안정감을 보여주는 신라시대 불상이다. 오른손은 항아리처럼이며 왼손은 몸체에 비해 큰 악함을 들고 있는 상현좌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두상은 유난히 나발과 육계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짧은 목은 삼도가 없고 두 어깨는 완만한 각을 이루어 근엄함을 드러내고 있다. 얼굴에는 백호공이 있는데 최근에 박아놓은 듯한 커다란 구슬이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흠이다. 주름무늬를 길게 하고 입체감을 주기 위해 다리를 울퉁불퉁하게 조각한 것이 특징이다. (한국교원대 박물관장)

돌부처 찾기 제보 받습니다 (02)722-4162

## 불교방송 서울 본사 : FM 101.9MHz

부산지방국 : FM 89.9MHz

광주지방국 : FM 89.7MHz

대구지방국 : FM 94.5MHz

청주지방국 : FM 96.7MHz

## BBS 불교방송이 새롭게 태어나고 있습니다.



- BBS 불교방송은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2,000만 불자 모두가 불교방송을 청취하시면 매월 20억원의 광고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정성어린 후원 동참을 당부드립니다.

# BBS 불교방송

주소 : 우 121-050 서울 마포구 마포동 140 다보빌딩(대표전화 : 02-705-5114)

후원회 : (02)705-5560-1

방송참여 : (02)705-5555~8

후원회 지로번호 : 8003478

FAX : (02)705-5229

### BBS 불교방송 주간방송순서

시각	프로그램명	진행자	시각	프로그램명	진행자
05:00	05. 새벽기도회 (FM 101.9MHz)	김영희	11:00	11.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06:00	06. 아침예배 (FM 101.9MHz)	김영희	12:00	12. 점심기도회 (FM 101.9MHz)	김영희
07:00	07. 아침예배 (FM 101.9MHz)	김영희	13:00	13.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08:00	08. 아침예배 (FM 101.9MHz)	김영희	14:00	14.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09:00	09. 아침예배 (FM 101.9MHz)	김영희	15:00	15.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0:00	10.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6:00	16.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1:00	11.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7:00	17.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2:00	12. 점심기도회 (FM 101.9MHz)	김영희	18:00	18.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3:00	13.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9:00	19.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4:00	14.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20:00	20.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5:00	15.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21:00	21.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6:00	16.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22:00	22.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7:00	17.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23:00	23.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8:00	18.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24:00	24.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19:00	19.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	25:00	25. 불교방송 1시간 (FM 101.9MHz)	김영희